

미스바 운동 (사무엘상 7:1-11)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 그대로 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인생이 간단하고 증거를 보게 된다. 때로는 그 말씀이 굉장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한다. 모세는 절먹이때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그냥 이야기의 흐름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할 정도가 되었다.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어느정도였을까가 능히 짐작이 갈 정도이다. 당시에는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받은 사람이 많이 없었다. 시대적 복음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평생의 말씀을 주셨다.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모세의 인생은 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모세만큼 전세계를 뒤집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모세만이 아니다. 그 시대에 약속의 땅을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랬다.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장로, 기생라합 같은 사람들이다. 전부 시대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이들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16:3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못하냐는 것이었다.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늘을 보고 내일은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잘 알면서 왜 너희는 나를 모르냐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표적이다. 모세 시대의 표적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다. 노아시대의 표적은 방주였다. 바울시대의 표적은 이방인, 곧 세계 복음화였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메시지 4개 주셨다. 이것은 이 시대의 표적이다. 이 4개의 메시지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당일까지 불잡아야 할 언약이다. 이것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인생이 이 방향에 맞춰져야 여호수아, 갈렙, 라합같은 인생이 된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들어와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1. 미스바운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운동이다. 1절에 보면 돌아온 언약궤를 기랴여아림이라는 곳의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다. 아마 레위집 안이었을 것이다. 그 아들 엘리아살을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다. 본래는 이 언약궤는 실로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었다. 그래서 거기에 언약궤를 보관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2절에 보면 20년을 거기에 있었다. 그런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하는 것이다. 사무엘도 그 시간표에 맞춰서 일해야 하는 것이다. 3절에 보면 이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우상을 버리고 전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할 것이라고 하셨다.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온 국민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했다. 물을 부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회개하고 헌신을 약속했다는 그런 뜻일 것이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때 하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회복하고 있는데 사단이 쳐들어 오면 그것이 살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블레셋이 쳐들어 온 것이다. 이

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다. 사무엘보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였다. 우리는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절먹는 어린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내렸다.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만 감당할수 없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패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이후 사무엘이 살아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것이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언약의 사람이다. 14절에는 빼앗겼던 땅을 다 회복하였다고 하였다. 옛날에 언약을 놓치고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같이 사는 다른 족속이었다. 본래는 싹 다 죽이게 되어 있었는데 다 안 죽이고 살려줬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면 나온다. 나중에 이 사람들 때문에 또 울무가 된다. 그러나 여하튼 언약을 회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다. 이것이 본문 미스바 운동의 줄거리이다.

먼저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중에서 회복을 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였다. 절먹는 어린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린 끝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을 멸해주셨다. 빼앗겼던 땅도 회복되게 하셨다. 사방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 언약의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적군을 막아주셨다. 이것이 미스바 운동이라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언약을 회복하는 그 운동이다. 우리에게 이 운동이 있기를 바란다. 이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야 한다. 복음이 언약이기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사단에 많이 건너지 있다. 이 운동이 남미 끝까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뿐이다. 이 소원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이다.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 위하여 내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한다. 나의 우상으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상이 누구나 한 개는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대적을 꺾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꺾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문제 뒤에서 역사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주신다. 지난 날 언약을 떠난 실수 때문에 잃은 것을 다 회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셨다. 그래서 인생이 평안해지는 것이다. 내 안에 이 언약이 살아 있기 때문에 나를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을 통하여 성취가 되는 것이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사무엘은 해마다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였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해 재판도 하였다. 그 재판의 기준이 율법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재판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은 대부분의 재판이 죄인을 잡아내는 것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 법 없으면 내일부터 미국은 사단의 나라가 된다. 조금만 사회적으로 흔들리면 물건 훔치는 것을 예사로 하는 나라이고 사람을 총으로 쏘는 나라이다. 그러나 그 때는 재판이 그 재판이 아니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 실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재판이다. 구약성경에 보면 재판을 돈받고 잘못되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것이 말씀 운동이다. 우리가 해야 할. 17절에는 보면 자기 집에 있는 라마에서도 똑같은 영적 작업을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곳에서 단도 쌓았다고 하였다. 이것이 사무엘이다. 그의 인생을 그려보라. 우리도

이렇게 되면 된다. 평안이 오는 것이다. 대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실수하고 잊어버린 것 회복시켜 주신다. 적군이 쳐들어 오면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이것이 언약이다. 이 언약 운동을 미스바에서 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다. 이것이 미국과 남미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대를 이어 해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 하는 것이다. 금토일이라는 단어는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단어이다.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는 단어라는 것이다. 잊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문화와 집중훈련 이런것도 마찬가지로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누구나 말씀으로 들어오면 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크게 들어갈 말씀, 그리스도. 이 시대의 표적 4가지, 부활 메시지. 그 안에서 우리가 거처가야 할 이정표이다. 금토일시대, 그리고 영역을 넓혀야 한다. 문화. 그리고 그 때 발견된 제자들을 진짜 제자로 집중 훈련시켜야 한다. 중요한 단어들이다. 멀리 있는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2. 언약을 가진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셨다. 잃어버린 땅도 회복시켜주셨다.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대적을 막으시므로 전쟁이 없는 평화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니가 내 언약을 회복하면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사무엘 때만 그렇게 했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인생을 살펴봐라. 이 언약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다. 내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는 것이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미국의 중대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남미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것이 되겠는가? 안되어지면 하나님이 거짓말 한 것이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다. 이런 언약을 잡은 한 사람, 남미에 한 나라를 정하고 나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난다면 살아볼 만한 인생 아닌가? 우리에게 이런 언약이 있으면 진짜 한번 살아볼만한 인생이다. 이것이 전부 우리 모두에게 언약이 되어서 이런 인생이 다 되기 바란다. 한나는 여자 한 사람이었는데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다. 놀랍다. 이런 여자 중직자 되고 싶은 사람 없는가?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우리가 만일 미국에 시대적인 문을 연다면 적어도 백년의 응답이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의 축복이다. 성경은 항상 이야기 한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한 교회의 축복이다. 이 길로 갈 것이다. 조금씩 열리고 있다. 시작이다. 남미는 지금까지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다음 선교를 해야 할 시간표이다. 남미 5천 종족 운동이다. 이미 지역마다 대표라고 생각 할만한 제자가 얼마나 있나 보니 한 30명정도 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열매이다. 이들과 함께 모여서 5천 종족 선포하는 것이다. 100팀 운동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을 전 남미에 일으키는 것이다. 물어볼 것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소원이다. 단지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언약으로 잡고 경제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 남미 선교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제를 가진 한 사람, 할만한 일이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왜 기도 못하겠는가? 시대적인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 전체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갈 그런 사람. 내가 왜 이 기도를 못하는가? 그러면 뭐할 것인가? 무엇이 내 기도제목인가?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눈을 크게 떠야 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분이 하나님이다. 현실에 잡히면 안된다. 그 사람은 성경에도 보면 현실에 잡히면 실패한다. 못간다고 말했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 사람들은 비교해보면

거인들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 죽었다. 될지 아닐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하라고 하셨다. 하라고 하면 그걸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다. 너는 모든 민족에 제자를 세워라. 그러면 시대적인 제자 운동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누가할것인가? 사무엘도 자기 맘대로 하는게 아니라 20년 후에 시작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야 하는 것이다. 기록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이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70년 후에 옮긴다. 70년 후에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언약계 옮길 마음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제자 운동 일어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잡아야 한다.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다. 치유운동, 반드시 일어난다.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를 것이라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 내 어린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 니가 시작하면 내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약속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이 237, 5천 종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거기에 가는 과정으로 100팀, 100지교회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이고 우리 교회이다. 믿는가? 우리 교회는 다르다. 무엇 때문에 다른가? 받은 복음이 다르다. 교회는 크지 않다. 받은 복음이 다르다. 이유는 하나 뿐이다. 사무엘이 언약을 회복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전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미국에 반드시 한다. 남미에 다음 단계 선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꼭 안하시면 죽을때까지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안들어오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한 것이다. 여기에 들어오면 복잡할 꺼리가 없다. 우리는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면 그 이후가 다 다른 것이다. 출발이 복음인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바르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사무엘 때문에 잃어버린 땅도 회복이 되었다. 더 이상 전쟁도 없었다. 그리고 전쟁 붙으면 하나님이 이겨버린다. 빼앗겼으니까, 아무 힘이 없는 언약계였다. 그런데 언약계 혼자서 다 정리해버렸다. 우리는 이 일을 할 교회이다. 우리는 이 언약을 받은 교회이다. 미국에 역사하게 되어 있다. 남미,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 진짜 언약 되기를 바란다.

개인이 먼저 이 언약으로 기적을 보는 인생 되기 바란다. 이 언약이 한번만 들어오면 의심도 된다. 이런 응답이 지속되면 그러면 증인된다. 그래야 이것이면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이 지속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이 응답으로 인해서 문제가 무너지는가? 언약을 잡는 것이다. 보통은 믿음으로 끝내버린다. 믿는 것만해도 너무 귀하다. 그러나 잡아야 한다. 고백도 해야 한다. 잘 안된다. 고백해야 한다. 다시 한번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한다. 계속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답이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다. 어디에 하나님 시간표인지 누가 아는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다. 자꾸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면 증인된다.

이렇게 되는 답, 언약 회복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다. 모세가 그랬다. 어머니로부터 말씀 받고 세계를 뒤집었다. 사무엘도 그랬다. 우리는 복음이 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